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무주군, 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발굴 사업 예산 반영 전망·애로사항 등 논의

무주군은 2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무주군이 올해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총 57개 사업(총 사업비 6,760억 원)에 대한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의 2023년 국가예산 반영 전망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무주군은 2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보고회는 각 부서장들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긍정점도와 노력 등을 세분화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무주군은 4차례에 걸쳐 부서별 간담회를 갖고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뒀다.

무주군이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 발굴한 주요사업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국비 3억),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국비 9억 6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 사업(국비 20억 원), 무주·설천(국도 30호)도로 확장공사(국비 25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국비 8천만 원), 농촌협약(국비 62억 3천만

원) 등이다.

무주군은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목표 실현을 다지는 데 의미를 모으기로 다짐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3년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향후 무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부서장들의 적극

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무주군의 주요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특히 강조했다.

한편, 군은 정부부처의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5월말까지 수시로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등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수 출마 선언

"자랑스러운 무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황의탁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황의탁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도의회에서 예결위위원장을 하면서 근접살림을 배우고 익힌 경험을 토대로 무주군 살림을 일구어 보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날 황의탁 무주군수 출마 예정자는 "의정활동 기간 중 노인요양병원 및 무주 소방서를 유치하여 건립예산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 출마 당시 군민들께 약속했던 도의원 의정활동비 전액도 무주군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는 등 무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본인의 치적을 언급했다.

황의탁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도의회에서 예결위위원장을 하면서 근접살림을 배우고 익힌 경험을 토대로 무주군 살림을 일구어 보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재 무주군의 중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해 그 재원으로 무주청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소상공인 기본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무주군민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무주군에 파수 다음으로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겠다. 무주구전동 관광특구를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등방천

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그는 "정당의 지지 없이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며 "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자랑스러운 무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 출마 당시 군민들께 공약했던 도의원 의정활동비 전액도(1억7천만원) 무주군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여 그 약속을 지켰으며, 군수에 당선되면 원금을 전액 무주군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한기 전 도의원, 진안군수 출마 선언

"변화와 개혁 완수 위해 민심 얻는 정치 시작"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이한기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28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당성이 아닌 민심을 얻는 정치를 시작한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한기 전 도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장수군이 최초로 제정된 만큼 군민들의 식품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책임윤리는 시대정신과 주민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며 "책임지는 길을 걷고자 했으나 지금의 민주당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탈당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악이란 악한 사람의 악행이 아니고 선한 사람의 침묵이다"며 "정치인의 책임윤리는 시대정신과 주민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정치 일점으로 민주당 밖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군민께 보답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진안군을 망가뜨린 '배거리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대를 저버리지 않은 율곡은 마음과 정

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한기 예비후보는 "군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택은 진안 발전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며 "이 변화를 통해 군민의 의사를 정책에 충분히 담고 그 변화가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5대, 6대, 7대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양성빈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 "고향사랑기부금제 전담팀 구성"

담례품 통해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종사자 소득향상 기대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라북 부위원장(이하 양 부위원장)이 28일 '고향사랑기부금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향민과 고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양 부위원장이 최초 발의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담례품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내 농·축산업 종사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효자 법안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아울러 출향민과 교류 확대 사업을 지원해 출향민과 장수 군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님이 장수에 거주 중인 출향민이 부모님의 소식을 더욱 가까이 접하고, 장수군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 고향에 더욱 관심갖고 연결고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가족화 사업은 민선 7기 최후득 군수 시절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다.

무주군, 탄소중립 달성 장바구니 대역사업 추진

무주군이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바구니 대역사업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트를 찾는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대여함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다.

군은 28일 군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구천동농협(양승욱), 무진장축협(정희준), 무주농협(곽동열), 풀마트(이철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달성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1회용 봉투, 노끈, 테이프 사용을 금지하고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조기 정착을 위해 무주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은 이들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장바구니를 대여하며, 사용 후 장바구니를 반납할 경우 대여금을 반환 받게 돼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과 동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 자신의 현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이상은 일정 부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을 담례품으로 보낼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담례품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내 농·축산업 종사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효자 법안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지역 소식통

김중문 장수군의원 전복최초 식품안전기본 조례안 발의

장수군의 김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제 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발의된 것으로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책무를 갖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중문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장수군이 최초로 제정된 만큼 군민들의 식품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실시

진안군은 28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HPV는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등의 생식기암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자궁경부암은 15~34세 여성 발생 암 중 3번째로 발생률이 높다.

당초에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HPV 백신접종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지원 확대로 만 13세~17세 여성(올해 기준 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인 만 18세~26세(1995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여성까지도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